

“盧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

선관위, 의무 준수 요청... “사전선거운동엔 해당 안돼”

靑 대응 주목...정국 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참정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조치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

난 2004년 3월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던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향후 정치적 의사표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됐으며, 청와대의 대응 정도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양급석 선관위 공보관은 이날 전체회의 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했다.

양 공보관은 또 “국정최고 책임자로 공정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가 참석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선에 있어 특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개진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양 공보관은 “(한나라당과 두 대선후보 비판 발언)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공보관은 이어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직 여부 대해서도 “참정포럼의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론은 위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진행됐으며 위원장도 표결에 나서는 등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에 앞서 청와대의 의견 진술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 소명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선관위는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견진술 요청을 받아들인)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총장로2가 보도공사 바꾼다

1·3가는 맨홀 덮개만 재시공키로

새로운 보도 블록의 재질과 색깔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따라 총장로(1~3가) 보도 교체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던 광주시가(본보 6일자 1면)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총장로 2가의 보도 포장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미 시공이 끝난 총장로 1, 3가는 미관상 문제를 야기했던 맨홀 덮개 시공 방식을 바

꿔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7일 “보도 바닥 석재의 색상과 디자인이 문화중심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전문가 등으로 총장로 특화의 거리 자문위원회를 재구성, 보도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보도 포장공사가 이뤄지

지 않은 총장로 2가(150m)에 대한 바닥 석재 색상과 디자인을 공사가 완료된 기존 1·3가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 구성할 자문위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또 총장로 공사구간에 있는 300여개 맨홀 덮개를 석재로 접합하는 과정에서 쉽게 파손되고 접합부가 미관하게 처리되지 않는 점을 고려, 맨홀 덮개 시공 방식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이 완료된 총장로 1·3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술팀을 구성해 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도 교체 등 가로포장과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총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6억원 규모로 내년까지 진행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건강체험박람회

광주시 북구청에서 7일 열린 '제1회 건강체험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건강체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금연·절주·정신보건 등 건강관련 17개 부스와 체력검사·영양상담·발 마사지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날 박람회에는 1천2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北, 미사일 또 발사

어제 오전 서해로 1~2발

북한이 7일 오전 서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서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북한이 당시 서해에도 발사하려 했었다”며 “당시 발사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사된 미사일 수는 한 발에서 두 발로 추정된다”며 “미사일 종류는 식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을 향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통상적인 훈련으로 발단은 의미가 없다”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했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미사일 탄착지점으로 추정되는 동·서해상에 어선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주·전남개발·썬카운티 컨소시엄 J프로젝트 3개 법인 설립

전경련은 20일께 완료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시행할 SPC(전담법인)가 설립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2면)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대주 컨소시엄(대주건설 등 최초 자

본금 200억원), 전남개발 컨소시엄(보성건설·송촌건설·금광기업·남해종합건설·전남개발공사 등 60억원), 썬카운티 컨소시엄(에이스 회원관광레소 등 50억원) 3개 컨소시엄이 SPC 설립을 마쳤다.

이와함께 전경련 컨소시엄(금호·대림·삼한·한국관광공사 등)은 오는

20일께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J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승인 신청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각 전담법인인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전체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7월중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현재 컨소시엄별로 수립 중인 개발계획을 이달 말까지 통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정부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2008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말 또는 늦어도 2009년 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J프로젝트 시

▲ J프로젝트 = 2016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영산강 3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간척지 3000만평에 F1 자동차경주장·해양레저타운·건강휴양타운·골프장, 주거단지, 테마파크 등을 만드는 사업. 총 투자금액은 35조원이며, 30만 명을 수용할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형태로 건설된다.

행 SPC가 구성됨에 따라 전담법인과 협력을 통해 금융권 등으로부터 자본 조달과 해외 유수의 관광개발사업자 모집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넨센스 CRACKER
‘넨센스’ 티켓 발매중!!
2007.6.30-7.1/광주문예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유망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중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신동의 심장 - 비듬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 광고심의필 : 918-0600

우리가족 활력에너지

비듬씨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THE KOREA'S Most Admired COMPANY

유한양행
200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All Star 3위 (제약부문 1위)

1일(아침·저녁) 2정 우리가족의 힘 - 비듬씨

■ 비듬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부산(051)462-4973 • 대구(053)752-05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627-9003 *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니다. (02-380-1658 www.kfda.go.kr)